



## 『三國遺事』와 『潛夫論』의 고조선 인식

The Understandings of the Old Choson in the Samguk yusa and the Qianfu lun

---

**저자**            윤내현  
**(Authors)**       Yoon Nae-hyun

**출처**            [단군학연구](#) , (22), 2010.5, 297-314 (18 pages)  
**(Source)**        [Journal of Dangun Studies](#) , (22), 2010.5, 297-314 (18 pages)

**발행처**         [단군학회](#)  
**(Publisher)**     Dangun Studies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459201>

**APA Style**     윤내현 (2010). 『三國遺事』와 『潛夫論』의 고조선 인식. 단군학연구, (22), 297-314.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08/22 13:00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三國遺事』와 『潛夫論』의 고조선 인식

윤내현\*

- |                              |                            |
|------------------------------|----------------------------|
| I. 머리말                       | III.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의 계승관계 |
| II. 『三國遺事』와 『潛夫論』의 箕子에 관한 기록 | IV. 기자의 신분과 고조선 이주         |
|                              | V. 맺음말                     |

## I. 머리말

고조선에 관한 한국의 기본사료는 『삼국유사』 「고조선」조이다. 그러나 그 사료적 가치는 낮게 평가되어왔다. 『삼국유사』는 정통의 역사서라기보다는 일종의 설화집으로서 야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편찬시기도 매우 늦은 서기 13세기 고려 말기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늘날 고조선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거나 가공된 신화나 전설로 취급하는 학자도 있다. 『삼국유사』 「고조선」조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부분은 고조선이 출현하기까지의 사회발전 과정이 신화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이른바 단군신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자는 고대사회 발전 과정에 관한 인류학의 연구결

\*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겸 석좌교수.

과와 대비하여 이미 논한 바 있다.

뒷부분은 고조선의 도읍 이동과 기자의 고조선 이주 등에 관해 기록되어 있다. 고조선시대의 현실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고조선은 아사달, 평양성, 백악산아사달 등으로 천도하였는데 서주로부터 기자가 이주해 오자 다시 단군은 도읍을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다시 아사달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기자가 고조선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뒤에도 고조선은 도읍을 장당경과 아사달로 옮기면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따르면 고조선은 기자조선이 있었던 시기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고조선이 기자조선과 병존해 있었다면 위만조선과 한사군 시기에도 고조선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만조선과 한사군은 기자조선 지역에서 그 뒤를 이었기 때문이다.

서기전 1세기에 이르면 고조선의 영역이었던 요동과 한반도 지역에 고조선이 분열되어 성립된 동부여, 고구려, 한, 신라 등 여러 나라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고조선은 이 시기에 붕괴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통용되는 한국 고대사 체계는 위만조선이 망한 다음 그 지역에 한사군이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 위만조선을 세운 위만은 서한의 연 지역에서 망명 온 인물이다. 그리고 한사군은 서한의 행정구역이다. 따라서 위만조선의 등장으로 한민족의 국가는 단절되고 중국인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체계는 중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의 역사는 중국 역사의 지류이며 중국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주와 한반도는 중국의 고토였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東北工程”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고조선, 부여, 고구려 등이 중국역사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도 여기서 시작

된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한국고대사 체계는 오늘날 통용되는 고대사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등의 흥기와 몰락은 고조선의 서부에서 일어난 사건들로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에도 고조선은 그 동쪽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사가 중국사의 지류에 불과하다든가 만주와 한반도가 중국의 고토였다는 동북공정의 논리는 근거를 잃게 된다.

그런데 『三國遺事』에 실린 한국고대사 체계를 뒷받침하는 중국문헌이 있다. 그것은 王符의 『潛夫論』이다. 『潛夫論』은 동한시대의 저술이므로 그 저술시기가 『三國遺事』보다 1천년 이상 빠르고 외국인의 저술이라는 점에서 객관성도 확보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기록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 II. 『三國遺事』와 『潛夫論』의 箕子에 관한 기록

『三國遺事』 「古朝鮮」조에는 西周 武王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고조선의 단군은 도읍을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다시 아사달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자가 고조선으로 이주한 뒤 고조선은 두 번 도읍을 옮겼다는 것이다. 그 기록을 보면,

서주 虎(武)王이 즉위한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곧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아사달로 돌아와 은거하다가 산신이 되었다.<sup>1)</sup>

고 하였다. 위 기록에 의하면 기자가 고조선에 봉해진 뒤에 고조선은

1) 『三國遺事』 「古朝鮮」條. “周虎(武)王即位己卯, 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

도움을 두 번 옮겼다. 도움을 두 번 옮길 정도였다면 그 영토는 상당히 넓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기자가 고조선에 봉해졌다면 그가 고조선에 도착하여 거주했던 곳은 고조선의 서부였을 것이다. 기자는 그곳에서 기자조선을 세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자의 고국인 商나라나 西周는 고조선의 서쪽 황하 유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조선의 도움 이동은 그 동쪽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기자가 세운 기자조선이 고조선의 서부에 있었다면 그것은 『帝王韻紀』, 『高麗史』, 『地理志』, 『世宗實錄』, 『地理志』 등에 기록된 한국고대사 체계 또는 오늘날 통용되는 한국 고대사 체계와는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왕운기』, 『고려사』, 『세종실록』 등에는 고조선이 망한 뒤 기자가 그곳에 와서 나라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뒤 서한 초에 위만이 서한의 연 지역에서 기자조선으로 망명하여 준왕의 정권을 빼앗아 위만조선을 세웠으며 그 뒤 서한의 무제에 의해 위만조선이 멸망되고 그곳에 한사군이 설치되었다고 하였다.

오늘날 통용되는 한국 고대사 체계는 위의 체계에서 기자조선이 삭제되어 있다. 그 옛날 기자가 멀리 황하 유역에서 한반도까지 이주해 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기자가 고조선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중국인들이 주변 민족의 역사를 자신들 역사의 지류로 만들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일 것이라고 보았다.

기자의 고조선 이주에 관한 『三國遺事』 「古朝鮮」條의 내용은 『帝王韻紀』, 『高麗史』, 『地理志』, 『世宗實錄』, 『地理志』 등에 기록된 내용과 전혀 다르다. 『三國遺事』 「古朝鮮」條는 기자가 고조선의 서부에 정착한 뒤에도 고조선은 그 동쪽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고조선과 기자조선은 병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한시

대의 『잠부론』에는 이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중국 고대문헌의 기록을 통한 근래의 연구 결과도 『三國遺事』, 『古朝鮮』條의 기록과 일치한다. 기자는 고조선의 서부 변경인 지금의 요서 서부 난하 유역에 정착하여 고조선의 거수국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sup>2)</sup> 이 글에서는 『潛夫論』의 기록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潛夫論』 「志氏姓」 조에는 『詩經』 「韓奕」편에 나오는 “韓城”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다. 『詩經』 「韓奕」편에 “커다란 저 韓城은 燕나라 군사들이 완성한 것”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韓城’이 있는 韓나라는 周나라의 제후국인 韓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韓나라는 燕나라 가까이 있는 韓侯가 다스리는 韓나라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韓나라 서쪽에 또한 韓이라 불리는 나라가 등장했다가 衛滿에게 공벌당했다는 것이다.

옛날 周 宣王 때 또한 韓侯가 있었으니 그 나라는 燕과 가까웠다. 그러므로 『詩經』에서 말하기를 “커다란 저 韓城은 燕나라 군사들이 완성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 후 韓의 서쪽에서도 또한 성을 韓이라 하였는데 衛滿에게 공벌당한 바 되어 해중으로 옮겨가서 살았다.<sup>3)</sup>

고 하였다. 周나라의 제후국이었던 韓나라와는 다른 韓나라가 燕나라 가까이에 있었는데 후에 그 서쪽에 또한 韓이라 불리는 나라가 등장했다가 衛滿의 공벌을 받아 바다로 쫓겨 갔다는 것이다.

위의 기록에 衛滿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위만은 한국고대사에 등장하는 잘 알려진 인물로서 위만조선을 건국한 사람이다. 위만에게 정권을 빼앗긴 인물은 기자조선의 準王으로서 箕子の 40여세 후

2) 尹乃鉉, 『箕子新考』 『韓國史研究』 41, 韓國史研究會, 1983.

-----, 『箕子朝鮮·衛滿朝鮮·漢四郡의 위치』 『고조선 연구』, 一志社, 1994, 368쪽.

3) 『潛夫論』 卷9 「志氏姓」. “昔周宣王時, 亦有韓侯, 其國地近燕, 故詩云, 普披韓城, 燕師所完. 其後韓西亦姓韓, 爲衛滿所伐, 遷居海中.”

손이다. 이점은 여러 문헌에서 확인된다. 『潛夫論』의 저자 王符는 연나라 가까이 원래 있었던 나라를 韓이라 부르고 위만에게 정권을 빼앗긴 기자조선도 韓이라 부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삼국유사』의 기자에 대한 기록과 대비해 보면 연나라 가까이에 본래부터 있었던 韓은 고조선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자는 고조선의 서부에 정착했었고 그 동쪽에 고조선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된 『三國遺事』 「古朝鮮」 조의 내용과 『潛夫論』의 내용은 일치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를 종합하면 연나라 동쪽에 고조선이 있었는데 뒤에 고조선의 서부에 기자조선이 등장했다가 위만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바다로 도망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등장과 멸망은 고조선의 등장이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고조선은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등이 존재했던 시기에도 그들의 동쪽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이 있다. 『潛夫論』에서는 왜 고조선과 기자조선을 모두 한이라 부르고 있을까.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고대에 동북아시아에서는 통치자를 한(韓, 汗) 또는 가한(可汗)이라 불렀는데 『잠부론』의 저자 왕부는 이를 국명으로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고조선의 국명이 초기에는 한, 아사달, 조선 등으로 혼용되다가 점차 조선으로 통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Ⅲ.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의 계승관계

『三國遺事』와 『潛夫論』의 기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자조

선, 위만조선, 한사군의 계승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衛滿과 그에  
게 정권을 빼앗긴 준왕에 관한 사료를 보면 『史記』 『朝鮮列傳』에,

(서한의) 燕王 盧縮이 서한에 반기를 들고 흉노로 들어가자 (衛)滿도 망명하였는데 무리 천여 명을 모아 머리를 틀어 올리고 오랑캐 옷(蠻夷服)을 입고 동쪽으로 도망하여 요새를 빠져나와 溟水를 건넜다. …… 오랑캐 및 燕·齊 망명자들이 그를 왕으로 삼았다. 王險에 도읍하였다.<sup>4)</sup>

고 위만 망명과 그의 건국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魏略』은 이보다 자세하게 위만조선의 건국 과정을 전해주고 있다.

옛날에 箕子의 후손인 朝鮮侯는 周나라가 쇠퇴한 것을 보고 燕나라가 스스로 높혀 왕이라고 하면서 동쪽을 침략하려고 하자 朝鮮侯 또한 스스로 칭하여 왕이라 하고 군대를 일으켜 오히려 연나라를 공격하여 周王室을 높이려고 하였다. …… 秦나라가 천하를 병합함에 이르러 蒙恬을 시켜 장성을 쌓았는데 遼東에 이르렀다. 그때 조선왕 否가 섰다. …… 否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準이 섰다. …… 縮이 (서한에) 반기를 들고 흉노로 들어감에 이르러 燕 사람 衛滿도 망명을 하게 되었는데 胡服을 입고 동쪽으로 溟水를 건너 準에게로 나아가 항복을 하고 準을 설득하여 서쪽 경계에 살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렇게 해주면 중국 망명자들을 모아 조선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하였다. 準은 그를 믿고 총애하여 博士로 제수하고 圭를 하사하였으며 그를 1백리의 땅에 봉하여 서쪽 변경을 지키도록 하였다. 滿은 망명의 무리들을 유인하여 그 무리가 점차 많아지자 곧 사람을 準에게 보내어 거짓으로 고하기를, 漢나라 군사들이 열개의 길로 쳐들어오니 들어가 속직하면서 지키겠다고 하고는 마침내 오히려 準을 공격하였다. 準은 滿과 싸웠으나 적수가 되지 못하였다.<sup>5)</sup>

4) 『史記』 卷115 『朝鮮列傳』. “燕王盧縮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魑結蠻夷服而東走出塞, 渡溟水, …… 蠻夷及燕·齊亡命者王之, 都王險.”

5) 『魏略』. 『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의 주석.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 及秦并天下, 使蒙恬築長城到遼東, 時朝鮮王否立, …… 否死, 其子準立. …… 及縮反, 入匈奴, 燕人衛滿亡命, 爲胡服東度溟水, 詣準降, 說準求居西界, 收中國亡命爲朝鮮藩屏, 準信寵之, 拜爲博士, 賜以圭, 封地百里, 令守西邊. 滿誘亡黨, 衆

고 하였다. 『後漢書』 『東夷列傳』 <濊傳>에는,

옛날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는데, ..., 그 후 40여 세에 朝鮮侯 準에 이르러 스스로 왕이라 칭하였다. 漢 초에 크게 어지러우니 燕·齊·趙의 사람들로서 피난을 간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었는데 연인 위만이 준을 격파하고 스스로 조선의 왕이 되어 나라를 전하기를 손자 우거에 이르렀다.<sup>6)</sup>

고 하였고 『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 <韓傳>에는,

(朝鮮)侯 準이 외람되이 왕이라 칭하더니 연의 망명자인 위만에게 공벌 당한바 되어 그의 좌우 궁인을 거느리고 도망하여 바다로 들어갔다.<sup>7)</sup>

고 하였다. 위만조선은 기자의 후손인 준왕의 정권을 빼앗아 건국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위만조선은 그의 손자 右渠王 때에 이르러 서한 武帝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 서한은 그곳에 네 개의 郡을 설치하였다. 樂浪郡, 臨屯郡, 眞番郡, 縣菟郡 등 이른바 漢四郡 또는 漢郡縣이라 불리어지는 것들이 그것이다. 이에 관한 사료를 보면 『史記』 『朝鮮列傳』에,

아들을 거쳐 손자 右渠에 이르렀다. ...., 천자는 죄인들을 모집하여 조선을 공격하였다. 그해 가을 樓船將軍 楊僕을 파견하여 齊(산동성)로부터 발해를 향해하였는데 병사가 5만이였다. 左將軍 荀彘는 요동을 나와 우거를 토벌하였다. 우거는 병사를 일으켜 힘하게 대항하였다. ...., 원봉 3년 여름에 尼谿相 參은 사람을 시켜 조선왕 우거를 죽이고 와서 항복하였으나

稍多, 乃詐遣人告準, 言漢兵十道至, 求入宿衛, 遂還攻準, 準與滿戰, 不敵也.”

6)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濊傳>. “昔武王封箕子於朝鮮, …… , 其後四十餘世, 至朝鮮侯準, 自稱王, 漢初大亂, 燕·齊·趙人往避地者數萬口, 而燕人衛滿擊破準而自王朝朝鮮, 傳國至孫右渠.”

7) 『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韓傳>. “侯準既僭號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 將其左右宮人走入海,

王險城은 함락되지 않았으므로 우거의 대신 成巳가 다시 반기를 들고 軍吏를 다시 공격하였다. 좌장군은 죽은 우거의 아들 長降과 相路人의 아들最를 시켜 그 백성들을 달래도록 하고 成巳를 죽이니 이로써 마침내 조선은 평정되고 네 개의 郡이 되었다.<sup>8)</sup>

고 하였다. 서한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네 개의 군을 설치했던 것이다. 『漢書』 『西南夷兩粵朝鮮傳』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는데 『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樂浪郡, 眞番郡, 臨屯郡, 玄菟郡 등 네 개의 군명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漢書』 『地理志』에 의하면 낙랑군은 元封 3년(서기전 108년)에 설치되었는데 현도군은 元封 4년(서기전 107년)에 설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도군은 위만조선이 망하고 1년이 지난 뒤 다른 군들보다 1년 늦게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왕실의 근친인 箕子는 자신의 조국 商나라가 周族에 의해 멸망되고 자신도 주족에 의해 구출되자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고조선으로 망명하였다. 고조선의 서부에 자리를 잡은 기자와 그 후손을 조선후라 불렀다. 이를 기자조선이라 부른다.

기자의 40여세 후손인 朝鮮侯 準은 스스로 왕이라 칭하다가 서한의 연 지역에서 망명 온 위만의 정변으로 정권을 잃게 되었다. 위만에게 정권을 빼앗긴 준왕은 좌우 궁인들과 함께 바다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기자조선은 끝나고 위만조선이 시작된 것이다.

위만조선은 서한의 외신이 되어 동쪽의 국경을 지킬 것을 약속하

8) 『史記』 卷 115 『朝鮮列傳』. 傳子至孫右渠, ……., 天子募罪人擊朝鮮, 其秋, 遣樓船將軍楊僕從齊浮渤海, 兵五萬人, 佐將軍荀逮出遼東, 討右渠, 右渠發兵距險. ……., 元封三年夏, 尼谿相參乃使人殺朝鮮王右渠來降, 王險城未下. 故右渠之大臣成巳又反, 復攻吏, 左將軍使右渠之子長降, 相路人之子最, 告諭其民, 誅成巳, 以故遂定朝鮮, 爲四郡.

고 서한으로부터 재정과 군사의 지원을 받아 국력을 키워나갔다. 위만의 손자 우거왕 때에 이르러 서한 무제는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서한에 병합하여 네 개의 군을 만들었다. 서한의 행정구역이 된 것이다. 이를 한사군 또는 한군현이라 부른다.

이를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기자조선→위만조선→한사군의 순서가 된다. 이들은 고조선 서부의 동일한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서 하나의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차지한 면적은 뒷시대로 오면서 확대되었다. 기자조선은 조선현 정도의 크기였으나 위만조선 건국 후 진번과 임둔 및 그 주변지역이 더해졌고 한사군시기에는 낙랑군, 진번군, 임둔군에 현도군지역이 더해졌다.<sup>9)</sup>

#### IV. 기자의 신분과 고조선 이주

箕子에 관해서는 갑골문과 청동기의 명문<sup>10)</sup> 등을 비롯한 『史記』의 『殷本紀』·『周本紀』·『宋微子世家』 등과 『尙書大傳』, 『論語』 등의 문헌에서 보인다. 기자는 상왕실의 근친으로서箕라는 곳에 봉해진 자라는 작위를 가진 제후였으므로 기자라 불리었다. 그의 이름은胥餘이다.<sup>11)</sup>

9) 『史記』 『朝鮮列傳』에 의하면 위만조선은 건국 후 진번과 임둔 및 그 주변의 마을들을 병합하였다. 『漢書』 『地理志』에 의하면 현도군은 한사군의 다른 군보다 1년 뒤에 설치되었다. 위만조선 영토 밖의 땅을 차지하여 그곳에 설치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0) 갑골문과 청동기 명문에는箕侯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청동기는 산동성, 하북성, 요서지역 등지에서 출토되었다.箕子의子是 작위를 뜻한다. 제후의 작위를 통칭하여侯라고도 하므로箕子를箕侯라고 쓸 수 있다. 이러한 청동기가 요서지역에서 출토된 것은 기자가 이 지역으로 이주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다.

공자는 기자를 微子·比干과 더불어 상나라 말의 세 사람의 어진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였다.<sup>12)</sup>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紂王이 문란한 정치를 하자 微子は 국외로 도망하였고 比干은 바른 정치를 하도록 간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를 본 箕子는 거짓으로 미친척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서주 무왕은 상나라를 멸망시킨 후 동생 召公奭을 시켜 감옥에 갇혀있던 기자를 석방해주도록 하였다.<sup>13)</sup> 그리고 전쟁의 승리에 따른 논공행상을 하였는데,

이에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그러나 신하는 아니었다.<sup>14)</sup>

고 『史記』 『宋微子世家』에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따르면 기자는 서주 무왕의 봉함을 받아 고조선으로 갔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신하는 아니었다.”는 구절은 그 뜻을 다시 새겨보게 한다. 기자가 서주 무왕의 봉함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의 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신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尙書大傳』은 이에 대한 해답을 준다. 기자는 무왕의 봉함을 받고 고조선으로 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망명했다고 말하고 있다. 즉,

周 무왕이 商나라를 이기고 公子 祿父로 하여금 商을 계승하도록 했으며 감옥에 갇혀있는 箕子를 풀어주도록 했는데 기자는 그 자신이 周族에 의해 석방된 부끄러움을 참을 수가 없어서 조선으로 도주하였다. 武王은 그 소식을 듣고서 그를 조선에 봉하였다.<sup>15)</sup>

11) 『史記』 卷38 『宋微子世家』의 주석 『史記索隱』.

12) 『論語』 『微子』. “微子去之, 箕子爲之奴, 比干諫而死, 孔子曰, 殷有三仁焉.”

13) 『史記』 卷4 『周本紀』. “武王爲殷初定未集, ……已而命召公釋箕子之囚.”

14) 『史記』 卷38 『宋微子世家』. “於是武王乃封箕子於朝鮮而不臣也.”

15) 『尙書大傳』 卷2 『殷傳』 <洪範>. “武王勝殷, 繼公子祿父, 釋箕子之囚, 箕子不

고 하였다. 기자는 그의 조국이 주족에 의해 멸망되고 그 자신도 주족에 의해 구명된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어 고조선으로 망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한 것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표현으로서 기자가 고조선으로 망명한 것을 인정해주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자가 서주 무왕의 신하가 아니었다.”는 표현은 바로 이를 뜻한 것으로 이해된다.

기자가 망명하여 정착했던 곳 즉, 기자조선이 있었던 곳은 고조선의 서부 변경지대였다. 지금의 요서 서부 灤河 유역이었다.<sup>16)</sup> 『漢書』 『地理志』와 『晉書』 『地理志』의 <낙랑군> ‘조선현’ 조에는 “조선현은 서주 무왕이 기자를 봉했던 곳”이라고 주석되어 있다.<sup>17)</sup> 한사군의 낙랑군 조선현은 옛날에 기자국(기자조선)이 있었던 곳인데 한사군 시기에는 조선현이 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그곳은 지금의 난하 유역 碣石山 부근이었다. 『太康地理志』와 『通典』 등에는 樂浪郡 遂城縣에는 갈석산이 있는데 이곳에서 秦長城(만리장성)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8)</sup> 조선현과 수성현은 함께 낙랑군에 속해 있었으므로 조선현은 갈석산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을 것이다.

『史記』 『孝武本紀』에는 서한 무제가 산동성의 泰山에서 封禪을 지낸 뒤 바다를 끼고 북쪽으로 순행하여 갈석에 이르렀다고 하였다.<sup>19)</sup>

因爲周之釋，走之朝鮮，武王聞之，因以朝鮮封之。

16) 윤내현,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의 위치』, 『고조선 연구』, 一志社, 1994, 368~375쪽.

17) 『漢書』 卷28下 『地理志』 <樂浪郡> ‘朝鮮縣’. “應劭曰，武王封箕子於朝鮮.” 『晉書』 卷14上 『地理志』 <樂浪郡> ‘朝鮮縣’. “朝鮮，周封箕子地.”

18) 『史記』 卷2 『夏本紀』의 碣石에 대한 주석으로 실린 『史記索隱』. “『太康地理志』云，樂浪遂城縣有碣石山，長城所起.”

『通典』 卷186 『邊方』2 <東夷>下 ‘高句麗’條. “碣石山在漢樂浪郡遂城縣，長

산동성의 북쪽 난하 유역에는 지금도 갈석산이 있다. 河北省 昌黎縣의 갈석산이 그것이다. 『大清一統志』 『永平府』 ‘古蹟’조에는 “옛날 기자가 봉해졌던 朝鮮城이 영평부 경내에 있다.”<sup>20)</sup>고 하였는데 명시대의 영평부는 지금의 난하 유역이었다.

위의 기록들은 기자가 지금의 요서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했음을 알게 한다. 즉 기자조선은 난하 유역 갈석산 지역에 있었고 이곳에 훗날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낙랑군 조선현이 되었음을 알게 해준다. 이 지역은 고조선의 서부 국경지대였다. 기자는 고조선의 서부 변경으로 망명하여 고조선의 거수국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기자와 그 후손들을 朝鮮侯라 불렀고 『史記』에서는 서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무왕의 신하는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요서지역에서 기자 일족의 청동기가 출토된 바 있는데 그 출토지점을 바로 기자조선이 있었던 곳으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기자가 지금의 요서지역으로 이주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sup>21)</sup>

기자조선의 준왕으로부터 정권을 빼앗은 위만은 위만조선을 세우고 서한의 외신이 되어 고조선과 대립하였다. 위만조선은 서한 무제의 침략을 받아 멸망되고 그곳에 한사군이 설치되었다. 그러므로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등의 등장과 멸망은 모두가 고조선의 서부 변경의 동일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던 것이다.

城起於此也.”

20) 『大明一統志』 卷5 『永平府』 <古蹟> 條. “朝鮮城在府內, 相傳箕子受封之地.”

21) 喀左縣文化館·朝陽地區博物館·遼寧省博物館 北洞文化發掘小組. 『遼寧喀左縣北洞村出土的殷周青銅器』 『考古』 1974, 제6기, 364~372쪽.

요서의 객좌현 북동촌에서 기자 청동기가 출토되었는데 그곳은 문헌을 통해 고증된 기자국의 위치에서 동북쪽으로 약간 떨어져 있다. 그 매장 상태는 숨겨둔 것 같은 양상을 하고 있고 당시의 현지 문화 유물은 동반하지 않았다. 이로 보아 기자 집단의 일부가 정변을 피해 도망가면서 묻어 둔 것으로 생각된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삼국유사』와 『잠부론』에 실린 기자의 고조선 이주에 관한 기록을 검토해 보았다. 이 두 문헌은 한국과 중국에서 일천년 이상의 시차를 가지고 저술되었으면서도 고조선과 그 주변 상황에 대해 기본적으로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기자가 이주해 오기 이전부터 고조선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기자조선은 고조선보다 늦게 그 서쪽에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다.

『삼국유사』는 기자조선이 있었던 기간에 단군은 장당경과 아사달로 두 번 천도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고조선은 기자조선의 동쪽에 상당히 오랜 기간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잠부론』은 고조선의 서쪽에 있었던 기자조선의 통치자들은 위만의 공벌을 받아 바다로 도망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기자조선이 고조선의 서쪽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두 문헌의 기록은 기자조선이 고조선의 서쪽에 있었다는 점에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한사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한사군은 위만조선이 멸망되고 그 지역에 설치되었으므로 한사군도 고조선의 서쪽에 있었을 것은 당연하다. 『삼국유사』와 『잠부론』은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등은 모두 고조선의 서부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존재하는 동안 고조선은 그들의 동쪽에 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등은 지금의 요서지역에 있었고 그 동쪽 지금의 요동지역과 한반도지역에는 고조선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민족의 역사는 고조선에서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또는 위만조선, 한사군을 거쳐 열국시대로 이어졌던 것이 아니라 고조선에서 바로 열국시대로 이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한민족의

고대국가는 단절된 적이 없다.

이는 기자가 고조선으로 이주하기 전 또는 기자국의 건국과 동시에 고조선은 멸망하였다고 말한 『帝王韻紀』, 『高麗史』, 『地理志』, 『世宗實錄』, 『地理志』 등의 기록과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고조선의 뒤를 이어 위만조선이 섰고 그 뒤를 이어 한사군, 열국 등의 시대가 차례로 전개되었다는 오늘날의 통설과도 크게 다르다.

서기 13세기 고려 후기에 저술된 『삼국유사』와 그보다 1천년 이상 앞선 동한시대에 저술된 『잠부론』의 고조선에 대한 인식이 같다는 것은 그 사료적 가치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다만 『잠부론』에서는 고조선과 기자국 두 나라를 모두 한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점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동북아시아 고대 언어에 통치자를 한(韓, 汗) 또는 가한(可汗)이라 부른 것을 『잠부론』의 저자는 국명으로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고조선의 국명이 초기에는 한, 아사달, 조선 등으로 혼용되다가 점차 조선으로 통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주제어 : 삼국유사, 잠부론, 고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한국고대사 체계.

### 〈참고문헌〉

『三國遺事』, 『高麗史』, 『世宗實錄』, 『潛夫論』, 『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志』, 『晉書』, 『大明一統志』, 『論語』, 『尙書大傳』, 『魏略』, 『太康地理志』, 『通典』,

<Abstract>

## The Understandings of the Old Choson in the *Samguk yusa* and the *Qianfu lun*

Yoon, Nae-hyun

The *Samguk yusa* and the *Qianfu lun* were respectively written in Korea and China in the interval of more than a thousand years. Nonetheless, they share a similar understanding on the Old Choson and the Kija state. Both texts mention that as the Old Choson had existed before the migration of Kija, the Kija state began to emerge to the west of the preexisting Old Choson.

The *Samguk yusa* records that Tangun moved his capital twice to Changdanggyong and Asadal, respectively, during the existence of the Kija state. This signifies the long duration of expanded Old Choson to the east of the Kija state. The *Qianfu lun* states that the ruling family of the Kija state to the west of the Old Choson received an attack from Wi Man and escaped to the south through the sea route.

Both texts share the same understanding on the Kija state located to the west of the Old Choson. Because Wi Man usurped the rulership of the Kija state and the Wi Man Choson was replaced by the Four Han Commanderies, it goes without saying that both Wi Man Choson and the Four Han commanderies were placed to the west of the Old Choson. The two texts mention that they were all located to the west of the Old Choson.

The Old Choson surely coexisted to the east of the Kija state, Wi Man Choson and the Four Han Commanderies. While the three parties were located in Liaoxi, the Old Choson was placed to the east encompassing Liaodong and the Korean peninsula. Thus,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history of Korean nation followed its main line from the Old Choson to the Multi-state period.

This kind of recognition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records of the *Jewang ungi*, the “Chiriji” of the *Koryosa*, and the “Chirili” of *Sejong silrok*, all of which state the fall of the Old Choson before the migration of Kija or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ija state. It also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current mainstream scheme of the Old Choson, the Wi Man Choson, the Four Han Commanderies and finally the Multi-state period.

That the *Samguk yusa* of the thirteenth century shares the same understanding on the Old Choson with that of the *Qianfu lun* of the second century in turn proves the authenticity of the texts.

The only problem in the *Qianfu lun* is that it names both the Old Choson and the Kija state as Han. This leads us to consider two possibilities: One, Wang Fu, the author of the *Qianfu lun*, might misunderstand han 汗 or *kahan* 可汗, the ruler in ancient northeast Asian languages, as a state name. Two, while the early names of the Old Choson varied like Han, Asadal and Choson, it may have been eventually unified into Choson.

※ Key Words : *Samguk yusa*, *Qianfu lun*, Old Choson, Kija state. Wi Man Choson, the Four Han Commanderies, the scheme of the Ancient History of Korea.